

# 문 대통령 '국정 안정·쇄신' 투트랙... 총리 교체 초읽기

### 휴일 공식 일정 없이 정국 구상... 이번주 방역·경제 회의 주제 박지원 국정원장·원혜영·김부겸 전 의원 등 총리 후보 거론

문재인 대통령이 4·7 재·보궐선거 참패의 충격을 수습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쇄신 행보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주 방역·경제 관련 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정책 성과 창출에 고삐를 죄고, 한편으로는 개각을 포함한 인사교체 구상을 가다듬을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휴일인 11일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정국 구상에 몰두했다. 12일에는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를 주재해 백신 수급

계획을 포함한 방역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이어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불러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전략산업 대응전략을 살펴본다.

민심의 이탈 흐름을 되돌리려면 무엇보다 정책 성과가 절실하고,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최일선에 나서 그 의지를 부각해야 한다는 절박한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방역의 경우 최근 하루 600~700명대의 확

진자가 나오면서 4차 유행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경제문제 역시 제조업 경기나 수출 전망 등의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만, 방역 상황과 맞물려 내수와 일자리 부진이 이어지는 양상이며 '이킬레스'인 부동산 문제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여권이 극심한 혼란을 겪는 가운데 당·정·청의 긴밀한 정책 조율작업이 제대로 작동할지도 장담하기 어렵다.

이런 가운데 인적 쇄신은 정책성과 창출에 비해 당장 변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은 물론 어수선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카드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우선 대권 도전을 위한 정세균 총리의 사퇴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가운데 문 대

통령은 조만간 후임 총리를 발탁할 것으로 보인다. 정 총리의 사의 공시와 시점에 대해서는 이란 방문(11~13일) 직후가 되리라는 전망과 오는 19~21일 열리는 국회 대정부질문 이후가 되리라는 전망이 갈리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4차 유행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어 정 총리의 사퇴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후임 총리 후보로는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원혜영·김부겸 전 의원 등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여성 총리가 거론되기는 하지만 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국 운영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발탁 가능성은 줄어 들고 있다.

경제라인 재정비 차원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교체 가능성도 거론된다. 후임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 고형권 경제협력개발기구 대사,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 등의 발탁 가능성이 언급된다.

아울러 이미 사의를 밝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는 예정된 수순이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성운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도 교체 대상에 오를 수 있다. 나아가 청와대는 선을 긋고 있지만 최재성 정무수석 등 정무 라인을 중심으로 한 대통령 비서실 개편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민주당, 재보선 참패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회의실에서 4·7 재보선 참패와 관련해 초선 의원들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 국민의당, 통합 놓고 '밀당'

### 국민의힘 "제1야당 간판 덕 승리"... 국민의당 "재보선 승리, 안철수 덕"

4·7 재보선에서 힘을 합쳤던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통합 문제를 놓고 본격적인 밀고당기기에 들어갔다. 정권 교체를 위한 '야권 대통합' 대의에 뜻을 같이한 양측은 서로 재보선 압승의 주역을 자처하며 통합 논의의 주도권 다툼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먼저 국민의힘에 적극 협조했던 국민의당이 '청구서'를 내밀었다. 국민의당은 안철수 대표가 이끈 단일화 시너지 덕분에 국민의힘의 승리가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안 대표의 '복심'인 이태규 의원은 지난 9일 SNS에서 "처음부터 단일화의 판을 만들고, 키우고, 끝까지 지켜서 완성한 사람은 안 대표였다"며 "야권의 승리 요인은 안철수라는 견인차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위선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안 대표가 단일화 패배에도 선거 운동을 도운 '공로'는 인정하면서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통성 있는 제1야당 간판으로 나섰기에 승리했다는 점을 부각한다. 통합 논의를 주도할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도 "국민의힘을 야권 대통합의 플랫폼으로 만들자"며 자당 중심의 통합에 방점을 찍었다.

양당 모두 통합의 시기나 방식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명분 쌓기에 돌입한 양상이다. 최대한의 자분을 확보하려고 '밀방 깔기'에 나선 것이다.

주 대표 대행은 지난 8일 안 대표와 비공개 오찬을 갖고 국민의당이 원하는 합당이 어떤 형태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으며, 안 대표는 이 자리에서 당내 의견 수렴이 먼저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이번 주 내내 신경전을 지속할 전망이다. /연합뉴스

### 차기 검찰총장 추천위 이번주 가동 김오수 전 법무차관 등 후보군 4명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이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천위는 이번 주 회의를 열어 법무부가 검증한 총장 후보자들을 심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추천위 회의는 12일 열릴 것으로 전해졌다.

김오수(20기) 전 법무부 차관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은 한때 법무부 장관과 금융감독원장 후보 물망에도 오를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서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며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조남관(24기) 대검 차장검사와 강남일 대검고검장(23기), 구본선 광주고검장(23기) 등도 후보군이다.

검찰 밖 인사 중에서는 봉욱 전 대검 차장(19기), 이금로 전 법무부 차관(20기), 양부남 전 부산고검장(22기) 등이 후보로 거론된다. /연합뉴스

## 이용빈 "새 공동체 모델위해 영산강 포럼 설립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용빈(광산갑) 국회의원은 11일 "영산강을 중심으로 광주·전남의 새로운 공동체 모델을 구상하며 (가칭)영산강 포럼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용빈 의원의 제안으로 진행된 '자전거 대행진'에 광주·전남 국회의원 이개호(당양합평 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윤영덕(광주 동남갑), 광산구정, 남구정, 광산구의회, 나주시의회, 광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남장애인사이클 등 지자체·기초의회, 관련 지역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

'현장과 대안'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정치권과 행정, 시민사회가 영산강 수계 지역을 직접 답사하며 공동의 진단과 분석을 통해 영산강의 쓸모와 가치를 재조명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광주와 나주 등 각자 지역에서 영산강 수계 수변공간까지 직접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면서 각 지역의 교통과 자연 등 지리적 여건을 탐사했다.

이 의원은 "호남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광주·전남 공동의 자원인 영산강을 매개로 초광역 매가시티의 한 축을 그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

화시대의 유산을 극복하고 기후위기 시대전환의 새로운 발전축으로 영산강권역의 활용방안을 구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개호 의원은 "지난날 3백리에 달하는 호남벌을 관류한 영산강은 중요한 해상교통로이자 문명의 플랫폼으로 역할해왔다"면서 "이제는 영산강이 광주전남 지역의 미래 비전을 그려가는 플랫폼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자체의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신정훈 의원은 "오늘 이 자리가 영산강권역의 찬란했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공유했던 공동체로서 지역민의 열망과 의지를 담아내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미래이자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자원으로서,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 될 영산강의 생명력을 되살리고 미래지향적인 보전과 개발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영덕 의원은 "광주와 전남은 영산강을 중심으로 마한 역사를 일궈왔다"며 "천년을 함께한 공동체에게 미래 전남 광주와 전남이 영산강을 중심으로 영산강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자"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여의도 브리핑

### 조오섭 "문흥동 성당 일대, 우수저류시설 대상지 선정"

더불어민주당 조오섭(북구갑) 국회의원은 11일 "광주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이 '2022년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신규대상지구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5개년 계획에 따른 공모사업으로 집중호우시 상습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수문 설치 등 총120억7300만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북구 문흥동 성당 일원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주차면 20여대와 주택 38곳이 침수되는 등 상습 침수 피해지역이다.

이에 문인 북구청장을 비롯한 북구청 공직자들은 지난날 2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주민설

명회, 긴급 타당성 조사용역, 부지사용 관련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등 빠른대로 대처하면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특히 행안위 소속 이형석 의원이 행안부에 적극적인 건의와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데 이어 국토위 소속 조오섭 의원이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내걸었던 한국도로공사와의 부지 이용에 관한 협의의 완료 문제를 한국도로공사와 풀어나가면서 이뤄 낸 성과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 대인동

# 싼 빵

- ▶ 동구 롯데백화점 근처
- ▶ 대지 515㎡(구. 156평), 중심상업지역
- ▶ 오피스텔 허가 득, 타용도 변경 가능
- 지하1층, 지상9층, 64호실, 47㎡
- ▶ PF 28억 가능
- ▶ 매매 - 21억원, 일시불 대폭 조정가
- 중개환영. 010-3605-5000

## 수기동

# 제일OP

- ▶ 20층 중 8층
- 계약 108㎡, 전용면적 67㎡
- 매매 - 1억1000만원
- ▶ 20층 중 20층
- 계약 252㎡, 전용면적 142㎡
- 매매 - 3억3천만원
- ※ 사무실 전용, 코너, 주차 편리
- 문의. 010-3605-5000

# 꼭! 받아야할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 수 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실거주지 파악 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